

# 문화예술교육 교류 보조금 확보

전주문화재단, 호주연방정부 국제문화외교예술기금 지원 대상 선정... 3년간 1억여원 규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2월 17일 호주연방정부 국제문화외교예술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 3년간 약 1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연방정부의 국제문화외교예술기금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국제 무대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지원 대상으로 전주문화재단·호주 아트플레이의 공동개발 예술놀이 콘텐츠를 비롯해 호주 전역에서 5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재단은 이번 지원금 확보를 계기로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사업의 운영 안정화 및 사업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 협력기관인 호주 아트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어린이 예술놀이 콘텐츠 그림자로 말해요 워크숍을 향후 3년간 보완 및 심화해 국제무대에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양 기관이 공동 개발한 '그림자로 말해요' 워크숍은 전주와 멜버른의 어린이들이 빔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 소통하는 이원생존계

방식으로 운영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보조금 확보는 해외 문화예술 기관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트플레이와의 공동 개발 콘텐츠를 세계무대에 선보임으로써, 전주문화재단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 예술로' 참여예술인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예술인과의 연계 지원 '전북 예술로'에 함께할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일 재단에 따르면 '전북 예술로'는 예술인들이 도내 기업·기관의 이슈를 예술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예술인 40명을 선정한다.

참여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활동 증진을 위한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소통 능력·기획 및 성과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선정된 참여예술인 4명과 리더 예술인 1명은 팀이 돼 참여 기업·기관과 함께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1인당 6개월 간 월 1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올해 '전북 예술로'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기업)으로는 전북생활문화센터, 국립공원 내 장산생태탐방원, (유)제이아이프, (유)디오니스토어, 국립공원 번식본도 생태탐방원, 전라북도콘텐츠팀, 하이트리로, 우진문화공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서화아트스페이스로 총 10개 기관이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www.jt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이메일(jtca023@gmail.com)로 접수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18일 전당 연회장에서 전북광역지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문화소외계층 문화생활 향유 '맞손'

### 소리문화전당, 전북광역지활센터와 협약 체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18일 전당 연회장에서 전북광역지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이고 건전한 문화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

와 전북광역지활센터 백영규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의 균형 있는 문화생활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및 계층 간 균형 있는 문화예술 체험 등과 연계한 사업 구상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해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은성 기자

## 공예 전문 소식지 구독자 모집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공예문화를 소개하는 공예 전문 소식지 '손으로 공예로' 구독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손으로 공예로'는 1년에 4번 발행하는 계간지로 공예문화를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고 있다.

소식지는 공예 소재, 공예 장인 및 작가, 공예 공방, 공예 상품 전문가 칼럼, 유네스코 공예기술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공예 문화를 담았다. 구독은 무료며, 신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onjiraft.or.kr)에서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취약계층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권 기증 협약식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전국의 취약계층 어린이 999명이 전주와 경주에서 전통문화 체험을 즐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을 비롯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직무대행 고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 등 4개 기관은 18일 서울 어린이재단빌딩 11층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권 기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협약식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기차여행과 전통문화 체험의 추억을 선사함으로써 아이들의 성

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에 따르면 999명의 어린이들이 전주를 방문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주지역의 요청에 따라 전주 668명, 나머지 333명은 경주에서 체험을 각각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은 기차를 타고 전주에 소재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지 뜨기 체험, 한식 조리 체험은 물론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한복과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게 된다.

한편 어린이 999명의 숫자는 유망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를 모티브로 기차여행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은성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동시대 시네아스트'에 미아 한센-러브

### '삶의 진실을 탐구하다'

데뷔작 '모두 용서했습니다' 등

감독 연출작 8편 중 6편 상영

영화제는 6월 2~6일 개최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무주 셀렉트: 동시대 시네아스트'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미아 한센-러브(Mia Hansen-Love) 감독을 선택했다.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무주 셀렉트: 동시대 시네아스트'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미아 한센-러브 감독을 선정 영화제 기간 동안 그의 영화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감독 특집 프로그램 '무주 셀렉트: 동시대 시네아스트'는 전 세계 영화감독 중 동시대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가진 감독 1인을 선택해 그의 영화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영국의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을 시작으로 스웨덴의 루벤 외스틀룬드, 미국의 켈리 라이카트, 브라질의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일본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까지, 매년 시대가 주목하는 감독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해 영화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무주 셀렉트: 동시대 시네아스트'에서 집중 조명할 미아 한센-러브 감독은 15년간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반영한 영화 만들기 통해 8편의 영화를 연출한 프랑스 감독이다. 그는 장편 데뷔작 '모두 용서했습니다'(2007)로 프랑스 아카데미상에 해당하는 세자르상 최고 데뷔작상 후보에 올랐고 이후 '내 아이들의 아버지'(2009)로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 팬들과 평단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어 10대 소녀의 지독한 첫사랑을 담아낸 청춘 멜로 영화 '인생 첫사랑'(2011),



프랑스 EDM에 대한 연사이자 청춘의 열정과 불안을 담은 '에덴: 로스트 인 뮤직'(2014)을 연출하며 자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그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심한 연출력이 빛을 발한 다섯 번째 영화 '다가오는 것들'(2016)이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감독상)을 수상하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현실과 픽션의 관계를 탐구한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베르히만 아일랜드'(2021)와 레아 세이두가 출연한 최신작 '어느 멋진 아침'(2022)의 칸영화제 감독상 간, 최우수 유럽영화상 수상과 함께 이제 프랑스를 넘어 전세계 영화팬들의 사랑을 받는 시네아스트 자리에 올라섰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미아 한센-러브 감독의 연출작 8편 중, 데뷔작 '모두 용서했습니다'(2007)부터 '내 아이들의 아버지'(2009), '인생 첫사랑'(2011), '에덴: 로스트 인 뮤직'(2014), '다가오는 것들'(2016) 그리고 최신작 '어느 멋진 아침'(2022)까지 총 6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이와 함께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전문가와 함께 그의 매혹적인 영화 세계를 확인하는 스포셜 토크가 진행되며, 국내 영화평론가들의 미아 한센-러브 작품론을 담은 '동시대 시네아스트 NO.6'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소리문화전당, 27일까지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 접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오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등 공연장 4개소와 갤러리 S·O·R·I 등 전시장 4개소, 국제회의장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국제회의장 대관 가능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관 가능일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야외공연장은 동절기(11~12월, 대관불가) 이전 7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협의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sor21.co.kr) 대관안내에서 대관신청자료를 내려 받은 후 이메일(kosa784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관 승인은 심의 결정을 거친 후 5월 12일 전당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3-270-784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